

성모의 화가 라파엘로 산치오 (1483-1520)

위대한 화가 중에는 평탄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 별로 없다. 화가의 길 자체가 그렇게 일반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예술분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반대로 인생을 비단길로만 다닌 사람도 있다. 그중에서도 라파엘로만큼 그에 해당하는 예도 없다. 그러나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한가지 약점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다. 37세에 요절했으니 하늘의 인자하신 공평성(?)에 역시나를 연발하게 된다.

그렇기는 하나 그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천재성이 있었고 젊은 나이에 이미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칭송받게 되었으니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으랴!

그의 존재감이 다빈치, 미켈란젤로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것 또한 잘못된 인식이다. 그 이유는 요절한 그에 관한 기사나 에피소드가 다른 작가에 비해 현저히 양이 적기 때문이었다. 르네상스의 종결자로 그의 위치는 독보적이다. 영국의 예술 사회 비평가 존 러스킨(1819 - 1900)은 한때 '라파엘 전파'라는 미술운동을 옹호하는 글에서 유럽 예술의 쇠퇴와 파멸이 라파엘로의 탁월함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라파엘로 이후의 회화는 의미없다는 해석을 낳을 정도로 그의 작품의 완성도는 당대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능가할 수 없었다. 이는 근대의 사진의 발명으로 미술은 죽었다라고 절망한 당시 화가들의 절규 같은 느낌이었을 지도 모른다.

라파엘로는 성품도 고귀하였고 그의 성실성 진실성은 일찌감치 모든 이에게 인정받을 정도였다. 그의 고결한 인성은 당시 교황이 그를 추기경으로 삼고 싶다는 내밀한 감정을 내비칠 정도였다. 작품을 의뢰받으면 그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결코 납품 날자를 어긴 적이 없으며 고객이 원하는 요구 이상으로 그들의 만족감을 충족시켰다. 특히 그는 성모자상을 많이 제작했는데 그 많은 작품들이 모두 새로운 구도와 해석으로 달리 그렸다는 것 또한 그의 출중함을 나타낸다.

이제 그의 대표작품 중에 하나인 '시스티나 성모'를 살펴보자.

거룩함의 상징인 짙은 녹색의 커튼을 열고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가 구름 위를 밟고 서서히 입장하고 있다. 왼쪽의 남자는 교황 식스투스 1세이고 오른 아래를 지긋이 내려다 보는 여인은 순교자의 대표격인 성녀



도판:시스티나 성모 Sistine Madonna(1512) 캔버스에 유채 265cm x 196cm

발바라이다. 마리아에게 안긴 아기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않고 안락한 의자에 앉은듯이 오른쪽 다리를 틀어 위로 올린 폼이 예사롭지가 않다. 마리아는 오히려 아기 예수의 위세에 눌린 듯한 모습이다. 왼손으로 살포시 아기 예수의 왼쪽 엉덩이를 받쳐주어 예수의 앉은 자세를 더 편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식스투스 교황은, 단축법으로 처리한 오른 손으로 정면을 가리키며 예수께 이 작품을 바라보는 자들의 구원을 탄원하는 모습이다. 벌거벗은 아기 예수에 비해 현실적 강자의 모습을 지닌 교황은 그 화려한 복식이 오히려 초라해 보일 지경이다. 그는 교황관까지 자기 발 아래 두고 세상 명예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한편 도판에서는 불분명하나 많은 아기 천사들이 커튼 뒷편 배경에 꼭 차있으면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배웅하고 있다.

이 작품에 백미는 하단에 난간에 기대어 영혼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아기 천사 푸토의 출연이다.

이 유명한 천사의 그림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라파엘로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드물다. 재미있는 것은 천사들의 표정이 아주 유모어스럽다는데 있다. 오른 쪽 천사는 아기 예수의 퍼포먼스를 당연하다는 듯 지루한 표정을 지으며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눈동자만 치켜뜨고 응시하고 있고 오른 쪽 천사도 그냥 성녀 발라라를 쳐다보며 하품 직전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두천사의 모습은 전편에 제시했던 르네상스 초기 지오토가 그린 천사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거룩함과 현실의 조화를 이룬 이 성화는 보는 이의 마음을 성결케 하면서도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하단부 뜻밖의 나타난 두 천사의 모습은 라파엘로의 여유롭고 너그러운 심정을 대변하는 듯 하다. .

그 위대한 미켈란젤로도 이 라파엘로를 질투했을 만큼 그는 회화에 관한한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 게다가 모든 여성들의 모성을 자극할 만큼 여리고 미남이었으며 이미 실력과 인품이 증명된 그의 삶은 현대의 아이돌 비티에스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4세에 사망하고 그 다음해에 라파엘로는 37세로 요절한다. 그보다 7살 위인 미켈란젤로는 그가 간 후, 40년을 더 살았으니, 라파엘로가 요절을 하지 않았다면 르네상스 최고봉의 화가가 되어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리라!

글/김용배 안드레아

사순 제 1주일
2024년 02월 18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그리스도의 유혹 > 아리 웨퍼, 1854, 영국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창세기9,8-15
화답송 시편 25(24),4-5 7ㄴ,6과 7ㄴㄷ,8-9(◎ 10 참조)



후렴.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제 2독서 베드로 1서3,18-22
복음 환호송 마태 4,4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마르코1,12-15
성가 입당 115 봉헌2 16, 220 성체 175, 158 파견 123

미사에 참례할 때에는 항상,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잘 읽고 묵상한 후에 참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양행자(스콜라스티카) - 가족
- 오경선(원선시오) - 가족, 이희숙(테레사)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상인(요아킴), 윤기복(안나) - 가족
- 이예두(요셉), 장치숙(아가다) - 가족
- Aida Torres - 크라라 토레스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오현주(요한) 예비 부제님 - 썸머셋 구역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어부들의 마을
- 윤 넬리 - 가족, 최 세레나
- 김영필(안토니오) - 양영길(그레고리오), 민규란(엘리자벳),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김삼식(베드로) - 양영길(그레고리오), 민규란(엘리자벳),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방숙자(마리요안나) - 양영길(그레고리오)
- 곽 율리안나 - 서경호(대건안드레아)
- 임영자(안나) - 하 테레사
- 최현지(안토니아) - 자모회
- 유병기(베네딕도), 유용희(율리아나) - 성가대
- 사랑하을 어머니 Pr. 단원들 건강 - 채미영(테레사)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2/11 주일 헌금 (151명)	\$1,341
• 2차 헌금 (유타리티).....	\$486
• 교무금.....	\$3,625
이용문(2) 변태용(1-4) 한상철(2)	
안현정(1-12) 우영인(1-2) 오용운(1-2)	
백영숙(1-4) 장문국(1-4) 하건철(1-2)	
서정근(1-2) 허종(2) 정테레사(1-12)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율리아나)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송희수(글라라)		

레지오 마리에 교육협의회 캐나다(몬트리올, 퀘벡) 성지순례

- 일시 : 2024년 4월 25일(목) - 4월 27일(토)
- 인원 : 선착순 35명
- 참가 자격 : 레지오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견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
- 신청 마감 : 2024년 2월 25일까지
- 지도 신부 : 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
- 참가비 : \$800 (2박 3일 전용차량, 호텔, 식사 포함)
- 문의 : 꾸리아 단장 채미영(테레사)

2024년 사순절 의무사항

- 재의 수요일, 성 금요일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 사순 기간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킨다.
- 가톨릭 교회에서 금식은 하루에 한끼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나머지 두끼는 가벼운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끼의 식사 양은 모두 합쳐서 한 끼의 식사에 해당 하는 양이어야 하며, 만 18세 ~ 만 59세 모든 성년자들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 가톨릭 교회에서 금육재는 소고기, 닭, 돼지고기, 터키 등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뜻하며, 만 14세 이상의 신자는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2차 헌금

- 2월 4일 : Catholic Spirit (교구 가톨릭 신문사 지원)
- 2월 11일 : 유타리티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사순시기 동안 매 주일 11시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2/18 요셉회 • 3/3대건회 • 3/10야고보회
- 3/17청년회 • 3/24자모회
- 2/25 주일은 주교님 사목 방문으로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 3/24 주일은 성지주일 행렬 입장이 11시 20분에 시작하므로 십자가의 길을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친교 봉사 일정

- 2/25 이스트브런스워 • 3/17 피스브릿지 • 4/21 노스브런스워

2월 빵과 포도주 봉헌 봉사자

- 2/18 우성현, 임영진

2024 Bishop's Annual Appeal

<Stay with us, Lord : Renew our Hearts and Send Us on Mission>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4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본당 목표 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1/4분기 전체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 2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전례분과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2월 18일(주일) 오후 4시 30분, Zoom Meeting
- 대상 : 소분과 단체장 (독서단, 제대회, 성가단, 복사단)

복사단 교육

- 일시 및 장소 : 2월 18일(주일) 미사 후 성당

올드브릿지 구역모임 (구역장 : 전옥주 글라라)

- 일시 및 장소 : 2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사우스브런스워 구역모임 (구역장 : 김태경 카타리나)

- 일시 및 장소 : 2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구역장 : 최현지 안토니아)

- 일시 및 장소 : 2월 1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노스 에디슨 구역모임 (구역장 : 이광호 다니엘)

-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토) 오후 4시, 오용덕(헨리코) 형제님 덕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 미사

- 일시 : 2월 25일 (사순 제2주일) 오전 10시 30분 한영 통합 미사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께서 우리 성당에 오시어 미사를 봉헌해 주십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모회 주관 테네시 농산물 판매

- 주문 마감 : 2월 25일(주일)
- 신상품 : 들기름 45불, 유기농 고춧가루 \$70

2023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성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당 내에서는 가급적 정숙하여 주시고, 미사 전에는 핸드폰 전원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친교실 대청소를 해주신 대건회, 야고보회 형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독서: 창세기 9,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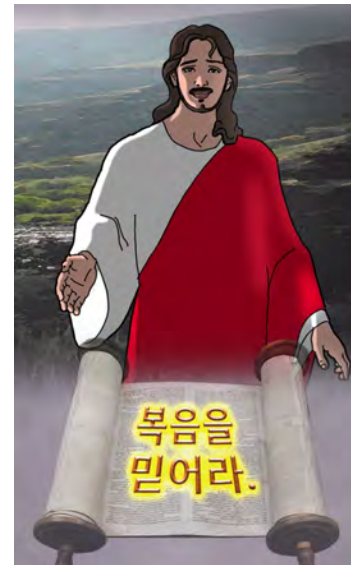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짐승들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베드로 1서3,18-22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여덟 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 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르코 복음1,12-15

그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

2024년 에디슨 한인 성당 사목 지표

1.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 - 미사에 자주 참례하고 영성체를 자주 하며 고해성사를 잘 보는 것,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매 주일에 미사 참석, 사순 대림 판공성사 참여, 분기별 고해성사 권장, 자연 보호,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음식쓰레기와 각종 쓰레기 줄이기, 무분별한 소비 줄이기

2. 교회를 사랑하는 삶 - 교무금과 헌금을 정성껏 봉헌하고 성당 건물과 기물을 내집처럼 보호하고 아끼는 것

성사와 기도 중심의 성당 생활, 수입의 십분의 일 ~ 삼십분의 일 교무금 봉헌, 아끼는 마음으로 건물과 기물 사용, 사용 후 청소 및 원위치, 나갈 때 소등과 문단속, 기도를 중심으로 일치된 공동체

3. 사람을 사랑하는 삶 - 신자들이 서로를 대할 때 먼저 누구에게든 존경하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각자의 영혼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을 생각함, 험담 대신 격려, 뒷담화 대신 기도, 세속의 언어 대신 신앙의 언어 사용, 모든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묵상